



마세라티 하이브리드 출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장점을 가진 하이브리드차가 친환경차의 인기 속에 자동차시장에서 빠르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이탈리아 하이퍼포먼스 럭셔리 마세라티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했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내연기관 모델보다 판매가격이 비싼 것과 달리, 마세라티는 내연기관 모델보다 오히려 낮은 가격으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 무엇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임에도 마세라티를 상징하는 포효하는 듯한 배기음을 비롯해 내연기관의 DNA를 그대로 이식했다는 점에서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려하는 소비자들의 선택지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다.

첫 하이브리드 SUV '르반떼 하이브리드'



가격 경쟁력·내연기관차 장점 담았다

기블리 하이브리드·르반떼 하이브리드, 가솔린보다 낮은 가격 최고출력 330마력·연비 향상...가솔린·디젤 수준의 성능 갖춰

◇마세라티 최초 전동화 모델-기블리 하이브리드-마세라티는 전동화 모델리드 시대를 맞아 마세라티 최초 전동화 모델로 '기블리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1963년에 이탈리아 전제 디자이너 조르제토 지아로(Giorgetto Giugiaro)와 협업해 처음 선보인 기블리 모델이 당시에도 완벽한 기술과 예술의 조화로 극찬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그 궤를 이어

가고 있다. 마세라티 최초의 전동화 모델로 한차원 혁신의 문을 연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기존 마세라티 라인업의 수려한 내외부 디자인과 특유의 퍼포먼스를 성공적으로 이식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2.0ℓ 엔진에 4기통 터보차저 가솔린 엔진을 장착했다. 종합적 성능 향상을 고려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결합해

최고출력 330마력을 자랑하며 기존 기블리의 V6 가솔린과 디젤 모델에 견주어도 동일한 수준의 성능을 전동화 파워트레인으로 변주해냈다. 여기에 복합연비 8.9km/ℓ로 기존 가솔린 모델에 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22% 감소시켰으며 디젤 모델과 비교하면 배출량을 약 5% 줄였다. 기존 마세라티 라인업과 동일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연비와 환경까지 고려한 모델로 탄생시켰다는 예가다. 또 기블리 하이브리드는 차량 무게 배분에도 세심하게 노력을 기울였다는 평가를 받는다. 엔진을 차체의 전면부에 장착하고, 48V 배터리를 후면에 장착해 차체 중량 배분의 밸런스를 향상시켰다. 이에

따라 더욱 민첩하고 즐거운 드라이빙을 가능하게 제작됐다고 마세라티는 설명했다. ◇마세라티 최초 하이브리드 SUV-르반떼 하이브리드-마세라티가 기블리 하이브리드의 뒤를 잇는 2단계 전동화 모델로 선보인 것이 바로 '르반떼 하이브리드'다. 마세라티 브랜드 최초 하이브리드 SUV 모델이다. 최고출력 330마력에 복합연비 7.9km/ℓ의 성능을 갖췄고, 무엇보다 르반떼 하이브리드는 가솔린 V6의 우수한 엔진과 퍼포먼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연비를 향상시킨 것이 특징이다. 가솔린이나 디젤 V6 엔진을 장착한 르반떼 모델

보다 개선된 연비와 향상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 모델보다 20%, 디젤 모델보다 8% 낮았으며 최고속도는 245km/h다. 인상적인 점은 350마력 V6 버전에 비해 연비를 18% 이상 절약하면서도 동일한 수준의 퍼포먼스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마세라티의 모든 하이브리드 모델들은 변함없는 마세라티의 시그니처 배기음을 그대로 구현한다. 앰프를 사용하지 않고도 배기의 유택역폭 조정과 공명기만으로 특유의 배기음을 구현해냈다는 개관객의 설명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현대차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제네시스 GV60 등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출시한 전용 전기차 3종의 내수와 수출이 각각 5만대, 10만대를 돌파했다. 9일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국내에서 지난달까지 아이오닉 5는 3만3213대, EV6는 1만8509대, GV60은 3197대가 팔려 3종의 누적 판매량이 5만 4919대를 기록했다. 아이오닉 5는 지난해 4월, EV6는 8월, GV60은 10월에 각각 출시됐다. 수출도 급성장해 올해 4월까지 누적 수출량은 아이오닉 5 약 6만2000대, EV6 약 3만9000대, GV60 약 1000대 등 10만2000여대가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전용 전기차 3종에는 모두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 (Electric-Glo-

현대차그룹 전기차 3종 '잘 나가네'

아이오닉 5·EV6·제네시스 GV60 내수 5만대·수출 10만대 돌파

bal Modular Platform)가 적용됐다. 내연기관이 차지하던 공간에 부피가 훨씬 작은 전기차 부품을 최적 배치함으로써 동급의 내연기관 차량에서 구현할 수 없는 넓고 안락한 실내 공간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배터리 용량과 모터의 수를 차량 크기나 종류별로 최적화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판매는 전용 전기차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 올해 들어 판매된 전기차는 현대차·제네시스 1만9730대, 기아 1만3820대 등 총 3만550대인데 이 중 전용 전기차가 2만3500대 59.7%를 차지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올해 1분기까지 판매된 전기차 7만6801대 가운데 전용 전기차는 4만2657대로 비중이 56%에 달했다. 현대차그룹의 전용 전기차 판매는 하반기에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아이오닉 5의 경우 3월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되기 시작한 데다 최근 현지에서 진행된 계약 물량이 지난해 이 나라 전체 전기차 판매량의 87%에 달하는 1500대를 넘어섰다. 또 현대차는 새로운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6를 하반기 초반에 국내에 출시한 뒤 4분기에 해외에서도 판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해외 판매가 본격화되지 않은 GV60도 해외의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하반기부터 판매될 예정이다. 이러한 주요 지역별 신차 투입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이 2분기 들어 점차 완화되면 현대차그룹이 올해 전용 전기차 20만대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박기용 기자 pboxer@연합뉴스

현대자동차 H-ear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

현대자동차는 '제2회 현대자동차 H-ear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2회를 맞는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전의 주제는 생애 첫차를 구매하는 20~30대 사회초년생 및 차를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데 활용하는 60~70대 액티브 시니어 고객을 위한 커스터마이징 상품 아이디어다. 창의적인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면 누구나 공모전에 참여 가능하며 이달부터 다음달 3일까지 현대차 대국민 소통 플랫폼 H-ear 홈페이지를 통해 아이디어를 접수할 수 있다. 현대차는 독창성, 상품성, 실현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6월 중 1차 심사를 진행하고 본선 진출작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후 7월 중 고객 선호도 조사를 거쳐 8월 말 우수작을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시상 인원은 총 10명으로 최우수 1명에게 상금 500만원, 우수 2명에게 각 200만원, 장려 2명에게 각 100만원, 입선 5명에게 각 20만원을 수여한다. 현대차는 지난해 처음으로 커스터마이징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스타리아의 공간활용성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제로 고객 제안을 모집한 바 있다. ISOFIX에 전원공급 기능을 추가해 운전석에서 조절하는 방식의 어린이 카시트 열선-통풍 시스템이 최우수 아이디어로 뽑혔으며 ▲어린이 안전 승하차 가이드 램프 ▲외부 슬라이딩 화물 박스 ▲파티션 겸용 테이블 ▲어린이용 머리지지대 ▲차량용 회전형 Portable LED 랜턴 ▲차박용 미세먼지 차단망 등 아이디어가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으로 선정된 아이디어 10건은 현재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

기아 신형 니로 EV 사전계약 돌입

에어·어스 2개 트림...4852만원~5133만원

기아는 친환경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디올 뉴 기아 니로' (신형 니로·사진)의 전기차 모델을 공개하고 사전계약을 시작한다고 9일 밝혔다. 신형 니로 EV는 지난 1월 하이브리드 모델을 출시한 후 4개월 만에 공개한 것으로, 최대 출력 150kW, 최대 토크 255Nm의 전륜 고효율 모터를 적용해 우수한 동력성능을 확보했다. 또 64.8kWh 고전압 배터리와 스마트 회생제동 시스템 2.0, 고효율 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와 배터리 히팅 시스템이 탑재돼 1회 충전으로 401km 주행이 가능하다. 복합연비는 5.3km/kWh다. 무엇보다 기아는 신형 니로 EV에 배터리 온도를 최적으로 관리해주는 '배터리 컨디셔닝' 기능을 차사 전기차 최초로 적용했다. 해당 기능은 외부 온도가 낮을 때 스스로 배터리를 예열하고 급속충전소에 가기 전 배터리 온도를 미리 최적화하는 기능으

로, 충전 성능을 높여준다. 신형 니로 EV에는 전비 향상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으면 가속, 감속, 정차까지 가능한 'i-페달' 모드도 탑재됐으며, 신형 니로에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해 차체 안전성을 높이고, 실내 공간을 넓힌 게 특징이다. 배터리 시스템 보호를 위해 배터리 하부에 알루미늄 보강재를 적용했고, 주요 부위에 핫스탬핑 부재를 보강하는 등 EV 맞춤형 고강성 차체 설계를 반영했다. 전장 4420mm, 축간거리 2720mm, 전폭 1825mm, 전고 1570mm 등 차체가 커졌고, 트렁크 공간도 1세대 니로에 비해 24ℓ 확대된 475ℓ다. 2열 시트를 접으면 평평한 플랫폼 가능해 활용도를 높였다. 이밖에 차량 외부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V2L'과 차량 내 간편 결제 시스템인 기아 페이, 스마



트폰으로 잠금을 해제할 수 있는 디지털 2 터치 등 다양한 편의사양이 탑재됐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HDA 2),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BCA), 지능형 속도 제한 보조(ISLA),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RSPA) 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ADAS)도 대거 적용됐다. 사전계약은 에어와 어스 등 2개 트림으로 진행된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전, 개별소비세 3.5% 기준 ▲에어 4852만원 ▲어스 5133만원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